

도시철도공사 '드론' 날려 지하철 점검

최첨단 설비 활용 스마트 안전경영시스템 가동 육안 확인 힘들었던 사각지대 꼼꼼히 확인 가능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드론을 이용해 지하철 시설물을 점검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드론과 광학장비 등 최첨단 설비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경영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고화질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장비를 토목시설물 점검에 활용해 안전관리의 정밀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었던 하천 위 철도교량의 아랫부분이나, 지상역의 높은 부분, 각종

시설물의 웅벽이나 사면 등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다.

기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사 토목팀 직원 40여명 전원이 드론 운용 기본교육을 이수했다. 이 중 전문가 교육까지 마친 2명의 전담요원은 국가공인자격취득을 앞두고 있고 추가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윤진보 공사 사장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 드론과 인공지능 등 최첨단 스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고화질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이용해 지하철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마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시민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등구, 소태천 수질개선 사업 박차

광주 등구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소태천 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이 시급한 복개구간 아래 지역 하류 구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으며, 오수유입 방지 및 생태하천 복원 결과 유기물, 영양염, 세제(ABS) 등 최대 54% 개선효과를 보였다.

또한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다양한 생물종 서식이 확인되는 등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높은 하천으로서 정량적 성과를 확보했다.

서구, 2020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본격 시동

광주 서구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마을기업 설립지원에 본격 나섰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서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주민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과정을 전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서구는 아카데미를 통해 지금까지 마을기업 2개, 예비사회적기업 2개, 협동조합 11개의 설립을 이끌어 왔다.

올해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설립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공동체는 공동체별 특성을 반영한 조직구성부터 사업아이템 발굴과 법인설립절차까지 맞춤형 개별 멘토링을 받게 되며,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과 공모사업 참여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남구, 주민정보화 교육 비대면 동영상으로 전환

광주 남구는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주민정보화 교육을 동영상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와 유튜브 '광주 남구청 정보화교육' 채널에서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주민정보화 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

중급자를 위한 인터넷 활용 강좌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이며, 엑셀 2010 강좌는 오후 3시 40분부터 5시 40분까지 각각 2시간씩 펼쳐진다. 비대면 동영상 방식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균등한 학습권 보장과 수강생에 대한 편의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북구, 공직자 도서기증 챌린지 캠페인

광주 북구는 2일 공직자 대상 '도서기증 챌린지'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도서기증 챌린지는 공직자가 읽지 않는 책을 기증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풍부한 도서자원을 제공하고 오는 12월 개관 예정인 북구 양산도서관의 소장도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구 전 부서가 참여해 일반도서, 아동도서, 학습만화 등 최근 3년 이내의 출판도서 1200여 권 확보를 목표로 챌린지를 진행한다.

북구는 기증받은 도서의 상태를 고려해 양산도서관의 장서로 비치할 예정이다.

광산구, 출산가정 배려 초인종 스티커 나눠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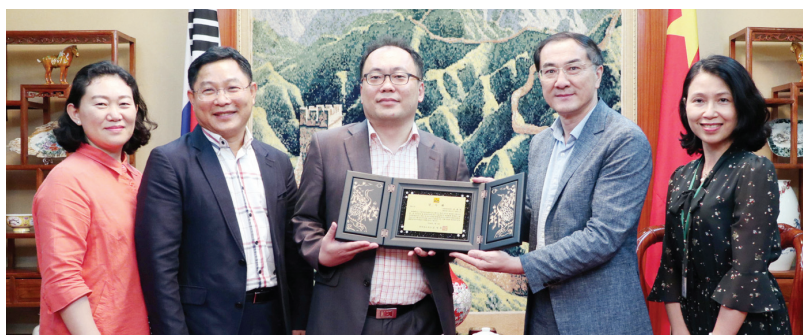
광주 광산구가 3일부터 보건소와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와 신생아 예방접종을 하러 온 가정에 초인종 스티커를 나눠준다.

이번 초인종 스티커 배부는, 아이의 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출산 가정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것.

'췌, 아이가 자고 있어요. 살짝 노크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담긴 초인종 스티커는, 올해 '광산구 행복정책 주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은상을 받은 작품이다. 성인 손바닥 정도 크기로 뒷면에는 자석이 있어 가정 현관문에 쉽게 붙이고 뗄 수 있게 제작되었다.

전남도, 4년 임기 마친 '쑤셴위' 중국총영사에 감사패

"전남-중국 우호교류 증진에 큰 역할"



전남도는 쑤셴위 중국 광주총영사(오른쪽에서 두번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4년간의 주광주중국총영사 임기를 마치고 3일 본국으로 돌아갈 쑤셴위 주광주중국총영사에게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기증과 지원에 나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을 보탤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방문이 어려워 쑤 총영사와 전화로 이임인사를 나눴다.

김 지사는 "4년 남게 전남도에 보여주신 애정에 감사드리고, 전남을 잊지 말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방문 교류가 어려워 안타깝지만 양국 우호협력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쑤 총영사는 "재임기간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며 전남 명예도민으로서 전남도의 미래 발전을 기원하고 중국과의 우호 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정환 기자

한국철도 전남본부, 주니어보드와 조직문화 개선 간담회 개최

입사 5년차 이하 직원 의견 수렴 조직문화 혁신 추진



한국철도(코레일) 전남본부는 최근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및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본부장 간담회를 시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본부장 이하 안전, 영업, 차량, 시설, 전기 등 각 분야 차장 및 제13기 주니어보드가 참석하여 분야 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본부 주니어보드는 청년층의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또한 재능

기부를 통한 다양한 활동과 세대 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조직문화 개선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은 전남본부 조직문화 혁신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계획이다.

김양숙 전남본부장은 "미래 한국철도의 주역인 주니어보드와 대화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세무기장 · 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았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4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진흥재단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어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의무일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건강진흥재단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